

한·영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 비교

: <죽음의 신이 데리러 온 여자> 노래를 중심으로

서영숙*

<차 례>

1. 머리말
2. 여성에 대한 인식: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의 역설
3. 죽음에 대한 인식: 운명과 반운명의 길항
4. 맺음말 : 총괄적 논의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작품으로는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애운애기, 허웅애기)> 노래와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Death and the Lady)>,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The Farmer’s curst wife)>를 선택하였다. 세 노래는 모두 ‘죽음의 신이 갑자기 여자를 데리러 온다’는 공통적인 화소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 중 <애운애기> 계열과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는 주인공이 아이를 둔 젊은 여자로서, 여자가 죽음의 신(저승차사, 악마)을 돈이나 재물로 회유하고 돌볼 자식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온 여자> 노래 중 <허웅애기> 계열과 영국의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둘 다 주인공이 저승에서 이승

* 한남대학교

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주인공이 솜씨 좋고 시집살이를 잘하는 ‘착한 여자’인 반면,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주인공이 사치스럽거나 성질이 고약한 ‘나쁜 여자’이다. 하지만 ‘착한 여자’인 허웅애기는 저승차사와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나쁜 여자’인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악마와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승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된다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와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는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론적 인식 사이에서, 영국의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죽음의 심판에 대한 긍정의식과 이에 대해 맞서 싸우는 반운명론적 인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항하는 향유층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핵심어 : 서사민요, 발라드, 애운애기, 허웅애기, 죽음의 신과 숙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 이승, 저승, 죽음, 여성, 운명

1. 머리말

발라드(Ballad)는 이야기를 갖추고 있는 노래, 노래로 불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¹⁾ 한국에서는 이를 ‘서사민요’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조동

1) “A ballad is a song that tells a story, with the main focus on a situation of dramatic conflict, in other words, one that deals centrally with a narrative theme.” 이는 1966년에 열린 the Kommission fur Volksdichtung(KfV)의 개회식에서 정의된 것이다. 이 글에서도 발라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기보다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노래(a song that tells a story)’ 정도로 범박하게 규정하기로 한다. Thomas A. McKean, “Introduction”, *The Flowering Thorn: International ballad studies*, ed. by Thomas A. McKean, Utah State

일은 서사민요를 '일정한 인물과 사건을 갖춘 이야기로 된 민요'로 규정하고, 발라드의 특징이 서사민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²⁾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서사민요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 거의 알려진 바 없어 한국에는 서사민요(또는 발라드)가 없는 것처럼 인식돼 왔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발라드 역시 한국의 서사민요와는 별도의 장르인 것처럼 취급돼 왔다. 이에 한국의 서사민요와 외국의 발라드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서사민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발라드 학계에 한국 서사민요의 존재양상을 알리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³⁾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서사민요와 발라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편의상 '발라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발라드가 서사민요라는 명칭보다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인 데다가, '서사'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장르적 성격으로 인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서사민요를 발라드와 동일한 범주의 것으로 보고, 한국과 외국의 발라드 중 유사한 사건의 계기를 지니고 있는 유형을 택해 그 특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외국 발라드 중에서는 수집과 편찬이 잘 이루어져 있는 영국 발라드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차일드(Francis J. Child 1825-1896)가 수집한 영국 발라드⁴⁾를 살펴보면 한국 서사민요와 비슷한

University Press, Book 68, 2003, pp. 10~11 참조.

2) MacEdward Leach, "Ballad", 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Vol.1, ed. by Maria Leach, New York: Funk & Wagnalls, 1940, pp. 106~111.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증보판, 계명대출판부, 1979, 51면 참조.

3) 한국의 서사민요와 영미의 발라드에 대한 비교의 선구적 업적으로 피천득·심명호, 「영미의 Folk Ballad와 한국서사민요의 비교연구」, 『연구논총』 2, 서울대학교 교육회, 1971, 169~237면; 한규만, 「한국의 서사민요와 영미의 포크발라드에 나타난 주제의 비교분석」, 『울산대 연구논문집』 19, 울산대학교, 1988, 1~28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논문은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의 발라드의 전반적인 공통점에 대해 착안한 논문으로 의미가 있으나 개별 유형들에 대한 심층적 비교 연구로 나아가 갈 필요가 있다.

4)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s(Five Volumes), Edited by Francis J. Child,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5 (First published in 1884-1898)에 약 1,000개의 발라드가 305항목으로 수록돼 있다.

발상을 지닌 유형이 영국에서도 다수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라드가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의 문학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주로 여성들에 의해 창작, 전승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⁵⁾

한국과 영국의 발라드 비교를 위해 우선적으로 택한 것은 여성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노래이다. 한국에서는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애운애기, 허웅애기)> 노래를, 영국에서는 <죽음의 신과 숙녀(The Death and the Lady)>,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The Farmer's Cursed Wife)>를 택한다. 이들은 모두 저승(지옥)에서 죽음의 신(저승차사, 악마)이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 오는 내용으로, 편의상 <죽음의 신이 데리러 온 여자>라고 명명한다. 저승에서 죽음의 신이 찾아와 이승의 여자를 데려간다는 발상, 이 발상으로 인해 형성된 노래가 한국만이 아닌, 영국에도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서의 거리를 넘어선 발라드의 보편성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한국과 영국의 발라드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유형의 비교는 동일한 소재에 대한 한국과 영국 발라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되리라 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들 노래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인식, 죽음의 신과 저승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하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유형을 달리해 지속적인 비교 연구를 해 나감으로써, 발라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조동일은 서사민요를 평민여성들이 길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규정하고 있으며(조동일, 앞의 책, 35~42면), 한규만은 발라드의 창자와 청중에 대해 “중세의 로맨스 문학이 남성들이 짓고 읽으며 남성들의 관심, 관점, 주제가 드러난 남성의 문학이라면, 포크 발라드는 여성이 부르고 듣고, 여성의 관심, 관점, 주제가 담겨있는 여성의 문학”이라며 보울드(Alan Bold)의 『발라드(The Ballad)』에서 발라드가 예로부터 여성들이 부르고 즐기는 장르임을 증명한 다섯 가지 문헌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이를 보면 유럽에서도 발라드가 여성들이 주로 길쌈을 하거나 우유를 짜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한규만, 「포크발라드와 여성」, 『신영어영문학』 12, 신영어영문학회, 1999, 7~10면 참조.

2. 여성에 대한 인식: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의 역설

<죽음의 신이 데리러 온 여자> 노래는 모두 한 여자 주인공에게 느닷없이 죽음의 신이 나타나 저승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그리고 있는 노래이다. 계열과 각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애운애기, 허웅애기)> 노래,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의 대체적인 줄거리를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저승차사가 데리러온 여자> 노래⁶⁾

가) 숨씨좋은 허웅애기를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다.

나) 식구들에게 인정을 달라고 하나 거절당한다. (식구들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나 거절당한다.)

다) 식구들과 이별하고 저승으로 간다.

라) 허웅애기가 저승에서 울기만 해서 이유를 물으니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

마) 염라대왕이 허웅애기에게 밤에만 이승에 다녀오도록 한다.

바) 아이들 차림이 깨끗하자 이웃집 할미가 허웅애기가 다녀가는 것을 알게 된다.

사) 이웃집 할미와 식구들이 허웅애기를 숨기나 저승차사가 혼만 빼간다.

아) 이후로는 사람이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없게 되었다.

6)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온 여자> 노래는 크게 세 계열-<애운애기> 계열, <허웅애기> 계열, <애운+허웅애기> 계열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애운애기> 계열은 주인공이 죽기 이전의 사건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면, <허웅애기> 계열은 주인공이 죽은 이후의 사건에 초점이 주어져 있으며, <애운+허웅애기> 계열은 두 계열의 복합으로 되어 있다. 어느 계열이건 모두 저승차사(죽음의 신)와 여자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여기에서는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사건이 복합돼 있는 <애운+허웅애기> 계열을 중심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모든 계열과 각편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서영숙,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애운애기>, <허웅애기> 노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자료 목록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영국 <죽음의 신과 숙녀>⁷⁾

가) 죽음의 신: 숙녀에게 오늘밤 데리러 왔으니 값비싼 옷과 물질을 남겨 두라고 한다.

나) 숙녀: 죽음의 신에게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하라고 한다.

다) 죽음의 신: 자신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며, 자신의 화살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라) 숙녀: 하필 자기 인생의 정점에, 그토록 빨리 왔느냐고 한다.

마) 죽음의 신: 논쟁할 시간이 없다며 모든 재물은 새 주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바) 숙녀: 금을 가지면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줄 수 있으며, 감옥에 갇혀있거나 늪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데려가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사) 죽음의 신: 자신은 뇌물이 소용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한다.

아) 숙녀: 자신의 예쁜 딸이 결혼할 때까지 미루어줄 수 없느냐고 호소한다.

자) 죽음의 신: 하찮은 핑계라며, 그녀를 놓아줄 수 없다고 한다. 왕조차 자신이 명령을 내리면 왕관을 내려놓고 따라야 한다고 한다.

차) 숙녀: 의사를 부르며, 뛰어난 기술로 죽음의 신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한다.

카) 죽음의 신: 의사의 기술은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타) 숙녀: 울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신(Lord)의 가호를 빈다.

영국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⁸⁾

가)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악마가 그를 찾아온다.

나) 악마는 착한 농부에게 농부의 골칫거리인 아내를 데리러 왔다고 말한다.

다) 악마는 그녀를 등에 업고 지옥으로 간다.

7) Death and the Lady, Lesley Nelson-Burns, 영국 씨섹스에서 1893년에 수집된 것으로, 원문은 <http://www.contemplator.com/england/death.html> 참조. 이후 인용시 번역은 필자가 함.

8) The Farmer's curst wife, Child Ballad #278. 원문은 <http://www.contemplator.com/child/curstwif.html> 참조. 이후 인용시 후렴과 반복은 생략, 번역은 필자가 함.

- 라) 악마와 여자가 지옥문에 도달했을 때 여자는 악마의 머리를 때린다.
- 마) 이를 본 작은 악마들이 아빠 악마에게 여자를 도로 데려다주라고 한다.
- 바) 악마는 여자를 다시 업고 땅으로 내려간다.
- 사) 악마는 농부에게 아내를 데려다주며, 그녀는 자신에게 큰 골칫거리라고 말한다.
- 아) 악마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하며 돌아간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와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셋 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신이 한 여자를 데리러 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셋 다 남자가 아닌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점, 셋 다 젊은 여자로서 아직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사하다.⁹⁾ 그러면서도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 중 <애운애기> 계열 노래와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는 여자가 죽음의 신에게 자신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달라고 애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한국의 <허웅애기> 계열 노래와 영국의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여자가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단 허웅애기가 이승으로 돌아왔다가 금기의 파기로 인해 다시 저승으로 송환된다면, 저주받은 아내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죽음의 신의 타깃이 여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영국 발라드의 공통점이지만, 여자의 성격과 자질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 한국의 허웅애기는 살림 솜씨가 좋거나 시집살이를 잘해 소문난 여자라고 한다면, 영국의 숙녀나 아내는 값비싼 옷이나 보석들로 치장한 사치스런 여자이거나 잔소리 많은 골칫거리 여자이다. 즉 한국의 허웅애기는 전형적인 선인형(善人型)의 '착한 여자'라고 한다면, 영국의 숙녀나 아내는 전형적인 악인형(惡人型)의 '나쁜 여자'이다. 허웅애기는 살림솜씨가 저승에까지 소문나 저승에서 쓰기 위해 데리러 온다면, 숙녀나 아내는 지나친 사치와

9)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각편에 따라 주인공이 늙은 여자로 나오기도 한다.

그릇된 행실을 징벌하기 위해 데리러 온다.

옛날에 이운애기라 카는 사람이 어떡큼 솜씨가 좋든지 일년에 누에를 두 번씩 먹이가 명주비를 해가, 애들 어른들 명주옷을 부리 부리 해 놓고 재미 나케 살았는데 고만 저승차사가 솜씨 좋고 한 해 명주 두번씩 한다고 잡으라 와서, 저승에 델고 가서 시킬라꼬 그래, 잡으러 왔는데 저승차사 조맹손이 이승차사 강림도령 쇠방맹이 둘러미고 쇠도루께 둘러미고 화살같이 굵은 길로 설때 같이 오는기라. (중략) 하도 솜씨가 좋아가 미초리 밭 매다가 미초리 한마리 왔능걸 호맹이 콩치로 툇 때리주이 잡았어. 그래 잡아 가주고 열 두 상을 보고나도 한 상 볼 게 남더란다. 하도 솜씨가 좋아서 그래 하도 미느리를, 그 미느리 죽고 나이 하도 원통해서,(이하 생략)¹⁰⁾

이 각편에서 주인공 애운애기는 길쌈을 한 해에 두 번이나 할 만큼 솜씨 좋은 인물이다. 게다가 메추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열두 상을 보고도 남을 만큼 음식 마련 재간도 뛰어나다. 애운애기의 솜씨는 전통 사회에서 부녀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이런 솜씨는 저승에까지 소문나 저승에서는 애운애기를 저승에 데리고 가서 시키려고 데리러 온다. 애운애기의 능력이 이승뿐만 아니라 저승에서도 통할 만큼 매우 탁월함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에 나타나는 숙녀는 사치스럽고 교만한 여자로 묘사되어 있다.

DEATH 죽음의 신

'Fair Lady, throw those costly robes aside, 멋진 숙녀여, 그 비싼 옷을 벗어 놓아라.

No longer may you glory in your pride; 당신은 더 이상 영광을 누릴 수 없다.

Take leave of all your carnal vain delight, 당신의 모든 세속적인 쓸모 없는 기쁨에서 벗어나라.

10) [성주군 대가면 설화 22] 구비대계 7-4, 저승에서 잡아간 이운 애기, 이차계(여, 60), 칠봉 2동 사도실, 1979.4.5. 강은혜 조사.

'I'm come to summon you away this night.' 나는 오늘밤 당신을 데리러 왔다.

LADY 숙녀

'What bold attempt is this? Pray let me know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발 내게 알려줘요.

From whence you come, and whither I must go. 당신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Shall I, who am a lady, stoop or bow 숙녀인 내가 몸을 굽혀 절해야 하나요.

To such a pale-faced visage? Who art thou?'¹¹⁾ 그런 창백한 얼굴에 게요? 당신은 누군가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숙녀는 값비싼 옷(costly robes)을 걸치고 있으며, 세속적인 쓸모없는 기쁨(carnal vain delight)에 사로잡혀 있다. 게다가 숙녀인 자신의 위상에 대해서 대단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비쳐진다. 죽음의 신에게 숙녀인 자신이 몸을 굽혀 인사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을 데리러 온 죽음의 신에게 왜 하필 자신의 영광이 절정인 때에 데리러 왔느냐며 따져 묻는다. 이러한 모습은 애운애기나 허웅애기가 저승차사에게 낮은 위치에서 애원하는 가련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숙녀는 죽음의 신과 논쟁을 벌일 만큼 까다롭고 콧대 높은 여자로 그려진다.

한편 허웅애기는 열다섯에 시집가 여러 명의 딸을 낳은 여자로 되어 있다. 무명 짜기를 잘해서 저승에서도 무명을 짤다고 한다. 각편에 따라서는 춤과 소리를 잘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길쌈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승에서 길쌈을 한다는 것은 허웅애기에게 저승의 살림을 맡아보는 역할이 주어짐을 말한다. 하지만 허웅애기가 이승에 두고 온 어린 아이들 걱정으로 제대로 길쌈을 못하고 울기만 하자, 저승왕은 허웅애기로 하여금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있게끔 한다. 허웅애기는 착하

11) Death and the Lady, 앞 자료 참조.

고 솜씨가 좋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보다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울기만 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인다.

옛날에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는 해도 두 개 들도 두 개 있어서 낮이는 막 뜨거워서 사름이 타죽고 밤에는 막 추워서 얼어죽고 하는 그러한 시절에 허웅애기가 잇엇는디 열다섯 살에 시집가서 딸을 여럿을 낳고 키우는디 저성왕이서 저성 오라고 해서 저성으로 갔수다. 즉 죽엇단 말입니다.

허웅애기는 미명짜는 걸(무명짜기를) 잘 해서 저성에 가서도 미명을 짜는디 허웅애기는 미명짜서 이승에 두고 온 딸이랑 서방이랑 생각이 나서 차꼬 울기만 핏수다. (이하생략)¹²⁾

이에 비해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에서 아내는 남편과 악마가 저주할 정도로 악독한 여자이다.

See here, my good man, I have come for your wife, 여길 보게 내 선한 남자여, 난 네 아내를 데리러 왔다네.

For she's the bane and torment of your life,(이하 생략)¹³⁾ 왜냐하면 그녀는 네 삶에 고통이고 골칫거리기 때문이라네.

여기에서 악마(devil)는 농부를 ‘나의 선한 남자’라고 부르며, 남자를 위해 여자를 데려가려고 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의 삶에 고통이고 골칫거리기 때문이다. 그러자 농부는 대환영이라고 반기며, 자신의 아내를 어서 데려가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한다. 악마와 농부가 완전히 한 편이 되어 아내에게 죽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각편에서는 농부의 아내가 늙은 여자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나쁜 아내(bad wife)로 나타난다.

12) 허웅아기, 제주시, 이방아, 1964. 8.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임석재 전집 9』 전라남도·제주도 편, 평민사, 1992, 283~285면.

13) The Farmer's curst wife, 앞 자료 참조.

THERE was an old farmer in Sussex did dwell, 썬섹스에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네.

And he had a bad wife, as many knew well. 그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나쁜 아내가 있었네.

Then Satan came to the old man at the plough: 그때 사탄이 밭을 갈고 있는 늙은 남자에게 왔네.

'One of your family I must have now. 네 가족 중 하나를 난 지금 데려 가야만 한다네.

'It is not your eldest son that I crave, 내가 원하는 건 네 맏아들이 아니라네.

But it is your old wife, and she I will have.'¹⁴⁾ 바로 네 늙은 아내, 그녀를 내가 데려가려네.

농부의 아내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소문난 ‘나쁜 아내’로 표현된다. 사탄이 농부에게 나타나 그의 늙은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하자, 농부는 “오, 환영해요, 선한 사탄이여. 내 온 마음을 다해서. / 난 당신과 그녀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길 바랍니다.(O welcome, good Satan, with all my heart! / I hope you and she will never more part.)”라고 응답한다. 사탄이 ‘선한 사탄(good Satan)’으로 불릴 정도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저승차사가 데리러온 여자> 노래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죽음의 신이 여자를 데리러 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허웅애기에게는 남편을 포함한 식구들, 심지어 저승차사나 염라대왕까지 우호적인데 비해,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에게는 남편을 비롯한 이웃사람들, 죽음의 신인 악마들까지 적대적이다. 그러기에 허웅애기의 죽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농부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조차 환영한다. 하지만 ‘착한 여자’ 허웅애기는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쁜 여자’ 농부의 아내는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역설이 이루어진다. 이 역설은 죽음의 신

14) 위 자료 참조.

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태도와 이에 대한 향유층의 의식에서 기인한다.

허웅애기와 농부의 아내 모두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농부의 아내는 이승으로의 귀환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허웅애기는 이승으로의 귀환이 불완전한 것이었다. 허웅애기에게는 밤에 만 이승에 있고, 낮에는 저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금기가 지워져 있었다. 각편에 따라서는 돌에 침을 뱉고는 그 침이 마르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귀환은 결국 이웃집 할미(또는 마고할미)가 알게 되면서 깨어진다. 이웃집 할미는 허웅애기를 저승에 돌아가지 말라고 설득하며, 허웅애기를 비롯한 허웅애기의 식구들과 공모하여 허웅애기를 숨긴다. 이로 인해 화가 난 저승왕은 올레에 쌓아둔 가시덤불을 피해 지붕의 상모루로 내려와 허웅애기의 혼을 빼가게 되고, 다시는 허웅애기가 이승에 내려올 수 없게 만든다. 구연자들은 허웅애기로 인해 사람이 죽어서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결국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여자’인 허웅애기는 인간이 더 이상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없게 만든 ‘나쁜 여자’가 되고 만다.

“가지 말라 가지말라.”

“어떻게 영 아이 가집네까?”

“늘랑(너는) 문안에 웃양(앉아서) 문을 중그곡.

우리랑 먼 올래(골목길)에 가시 쌓민 체스(차사)들이 못온다. 우리가 못오게 험마.”(중략)

체스님은 나오란

“이디(어디) 허웅애기가 어디 싯수가(있습니까)?”

씨어멍이 나오란.

“그년 아니가젠(아니 가려고) 올래에 가시 쌓고 문 중간(중간에) 들어앗았수다.”

“게엔, 어떻게민 그년 잡아가질 수가 십네까?”

“지붕 상모루로(상마루로) 강(가서) 혼이나 빵(뿍아서) 갑서.”

그젠 체스가 지붕 상모루로 간, 혼을 뺐 가부난 그만 죽어지연

다신 허웅애기가 이심을 돌아오지 못험연.

그 법으로 금시상(지금 세상)이 인간이 죽으면 다시 아니오곡 씨어멍 때

누리 스이가 곳어집네다.¹⁵⁾

여기에서 보면 허웅애기가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이후로 사람이 죽으면 이승에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허웅애기가 숨어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허웅애기의 어리석은 '착함'은 도리어 인간에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고통을 영원히 안겨주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는 '악함'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역설의 양상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Now they say that the women are worse than the men, 이제 그들은 말하네, 여자는 남자보다 악하다고.

They went down to Hell and got kicked out again.¹⁶⁾ 그들은 지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쫓겨났다네.

악마와 남자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한다. 여자들은 지옥에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난 부류이다. 즉 여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마들조차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여자들의 본성을 '악함'에 두고 증오하는, 여성혐오증(misogyny)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문면 그대로만 읽을 수는 없다. 농부의 아내는 악마(사탄)조차 고통스럽게 하며, 천국에도 지옥에도 적합하지 않은 존재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이승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역설이 성립된다. '나쁜 아내'는 악마와 악마가 '나의 선한 남자(my good man)'라고 부르는 남편이 규정한 것이다. 과연 누가 '나쁜' 존재인가? 악마인가? 악마와 그와 한 통속인 농부인가? 아니면 악마와 그와 한 통속인 농부가 '나쁜 아내'이자 '골칫거리'라고 부르는 농부의 아내인가? <농부의

15) 허웅애기 본,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21~623면.

16) The Farmer's curst wife, 앞 자료 참조.

저주받은 아내>는 ‘나쁜 아내’로 불린 농부의 아내가 오히려 악마를 이기는 역설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로 인해 이 노래는 여자들을 악하다고 규정하는 존재들에 대한 비판과 조롱으로도 읽힌다.

이처럼 한국의 허웅애기와 영국의 숙녀 또는 아내는 같은 여자이면서도 매우 다르다. 허웅애기는 살림 잘하고 마음씨 고운 ‘착한 여자’이며, 숙녀 또는 아내는 사치스럽고 잔소리 많은 ‘나쁜 여자’이다. 문제는 ‘착한 여자’인 허웅애기는 다시는 이승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나쁜 여자’인 농부의 아내는 이승으로 돌아오는 역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승에 돌아와 살고자 하는 허웅애기의 시도는 좌절되고, 농부 아내의 시도는 성공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허웅애기의 시도가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이웃집 할미(또는 마고할미)의 도움을 비는 소극적인 데 머무른다면, 농부 아내의 시도는 아무런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죽음의 신에 도전하고 맞서는 적극적인 데로 나아간다. 허웅애기가 수동적이라면, 농부 아내는 능동적이다. 곧 한국의 허웅애기는 ‘착한 여자’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인 여자라고 한다면, 영국의 농부 아내는 ‘나쁜 여자’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낸 여자라 할 수 있다.

3. 죽음에 대한 인식: 운명과 반운명의 길항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 <죽음의 신과 숙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 노래는 모두 여자 주인공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이때 주인공이 자신을 데리러 온 죽음의 신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노래 속에서 저승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등은 한국과 영국 발라드 향유층이 죽음, 특히 여성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저승에서 이승으로 여자 주인공을 데리러 온 존재는 한국에서는 저승차사이고, 영국에서는 악마(또는 사탄)로 되어 있다. 한국의 저승차사는 매우 무섭고 엄격한 존재로 그려져 있지만, 스스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그는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며 선악의 판단에 있어 중립적이다.

헌장삼은 폴(팔)에걸고 간단죽박 손에들고
 은천동우 폴에지고 심질로만 썩나서니
 광주사는 이도령이 쇠사실(쇠사슬)을 목에걸고
 쇠사방망이(쇠방망이) 손에들고 날잡으로 여췄다네
집이라고 도로가서 쌀서되로언어 밥을지어
간단식사로 지어놓고 밥이라도 막어가오
밥도 내사싫네 어서가고 배뻐(바뻐)가세
내우게도(내 위에도) 많은 어른있네 (중략)
 돈천냥 내여놓고 돈천냥도 막어가오
 돈천냥도 내사싫네 어서가고 배뻐가세
 내우게도 많은 어른있네¹⁷⁾

주인물은 저승차사에게 밥, 은동이, 돈 천냥 등으로 저승에 가는 길을 늦춰보려고 하지만, 저승차사는 “---도 내사싫네 어서가고 배뻐가세 / 내우게도 많은 어른있네”라고 하며, 자신 위에 많은 어른이 있다고 한다. 저승차사의 경우 저승의 시왕 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임무를 할 뿐, 스스로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위 각편에서처럼 저승차사는 자신 역시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 시도 늦출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비해 영국의 악마(또는 사탄)은 매우 냉정하고 엄격하며, 스스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막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죽음의 신은 처음 자신의 권능을 무시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으려는 숙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

17) [고흥군 도양읍 민요 29] 구비대계 6-3, 저승노래, 장옥지(여·77). 용정리 상류, 1983.7.27., 김승찬, 한채영 조사.

한다.

D: I am he that conquers all the sons of men, 나는 인간의 모든 아들을 지배하는 바로 그자다.

No pitch of honour from my dart is free, 어떤 고귀한 자라도 나의 화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중략)

If Death commands the King to leave his crown 죽음이 왕에게 왕관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한다면.

He at my feet must lay his sceptre down; 그는 내 발 밑에 그의 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Then, if to Kings I do not favour give¹⁸⁾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죽음의 신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을 지배하는 자라고 설명한다. 제 아무리 고귀한 자,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령-죽음의 화살-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한다. 이승의 절대 권력자인 왕조차 죽음의 신 앞에서는 아무런 힘과 권세를 부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mortals)일 뿐이라고 호언한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죽음의 신은 여러 위계로 나뉘어 있어 저승차사는 아무런 힘도 없는 데 비해, 영국에서의 죽음의 신은 단일하게 나타나며 막강한 권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그러나 죽음의 신이 단지 심부름을 온 것이건, 직접 시행하건 간에, 주인공에게는 자신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자이기에 무섭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때 한국과 영국 모두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저승차사나 죽음의 신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점은 흥미롭다. 이승에서 문제해결의 불법적 수단으로 쓰이는 뇌물이 죽음의 신에게도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승차사나 죽음의 신 모두 사람의 뇌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뇌물은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이지만, 죽음의 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는 저승의 법이 공정하고 엄격함

18) Death and the Lady, 앞 자료 참조.

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과 영국 발라드 향유층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한국과 영국 발라드 모두 주인공이 자기 대신 누군가가 저승에 가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 대신 가주기를 바라는 대상이 한국에서는 가족들로 나타난다면, 영국에서는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 나타난다.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온 여자> 노래에서는 젊은 주인공이 어린아이들을 보살펴야하기 때문에 식구들에게 자기 대신 저승에 갈 수 있는냐고 묻는다. 하지만 식구들 모두 “쇠뿔도 각각이요, 염불도 뭇뭇이라”며 거절한다. 주인공이 오랫동안 식구들을 위해 베풀어온 희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각편에 따라 친정식구들이나 남편이 가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저승차사에 의해 거절당한다. 여기에는 저승은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있다.

저승채사 잡으러왔네 저승채사 잡으러와서
 씨금씨금 씨어마니 이내대신 갈랍니까
 어라이년 뭐라쿠노 소뿔도 각각이고 염줄도 목목이라
 니대신 니가가고 내대신 니가가지 니가는데 내가가노
씨금씨금 아부님요 이내대신 갈랍니까
어라이년 뭐라쿠노 니대신 니가가고 내대신 니가가지
소뿔도 각각이요 염줄도 목목이라
군자님요 군자님요 이내대신 갈랍니까 니대신 내가가마
어린애기 잘키아라¹⁹⁾ 어라어른들 하는말이
어림없는 소리마라 함부래 하지마라
아들하나 있는거로 우찌우찌 키었다고
누한테 죽으라고 못된소리 니가하노²⁰⁾

19) “신랑이 제일 낫더란다”라는 설명을 하고 다시 이 대문을 반복하여 불렀다

20) [울주군 상북면 민요 7] 구비대계 8-13, 고사리 노래, 이용선(여·72). 명촌리 명촌, 1984.8.3., 정상박, 성재옥, 박정훈 조사.

이렇게 한국에서 주인공이 식구들에게 대신가기를 부탁하는 것은 한국의 가족주의적 사고방식과 가족 중심적 생활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조차 죽음에 대한 거부와 공포 앞에서는 무력해지면서 개인의 몫으로 치부된다. 이 각편에서는 특히 남편이 대신 가겠다고 나서자 시부모가 나서서 “어림없는 소리 마라 함부래 하지마라 / 아들하나 있는거로 우찌우찌 키왔다고 / 누한테 죽으라고 못된소리 니가하노” 하며 며느리를 나무라기까지 한다. 딸, 며느리는 온전한 가족으로 생각지 않았던 가부장제 하에서의 남성중심사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죽음을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신 데려가 달라고 함으로써,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인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죽음의 신과 숙녀>에서는 가족에게 대신가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또는 사탄)에게 자기 대신, 노인, 병자, 죄인을 데려갈 수 없느냐고 애원한다. 노인, 병자, 죄인은 모두 이 세상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니 죽음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다. 하지만 악마(또는 사탄)는 사람들은 각기 죽음의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지금은 숙녀가 가야 할 때라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당기길 원하는 사람은 흔치 않으며,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을 단축시킬 권리는 없다. 이는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생각을 숙녀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을 이면적으로 표현한다.

L. Here's bags of gold, if you will me excuse 여기 금 자루가 있어요.
당신이 날 놓아준다면.

And seize on those; and finish thou their strife, 그걸 잡아요. 그리고
그들의 싸움을 끝내주세요.

Who wretched are, and weary of their life. 그들은 삶에 지치고 비참
해져 있어요.

L. Are there not many bound in prison strong 감옥에 뽕뽕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나요?

In bitter grief? and souls that languish long, 지독한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괴롭게 살고 있는 영혼들 말예요.

Who could but find the grave a place of rest 그들은 무덤에서 유일한
휴식처를 찾지요.

From all their grief; by which they are opprest.²¹⁾ 그들을 억누르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숙녀의 호소는 겉으로는 노인이나 죄인, 병자 등을 위하는 듯하지만, 정작 궁극의 목적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무엇이건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의 극단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신이 이러한 물질 공세에 넘어가지 않고 저승의 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과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편 허웅애기와 숙녀 모두 죽음을 늦추게 해달라는 이유 중 절대적인 것이 돌봐야 하는 아이가 있다는 점이다. 허웅애기에게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이가 있고, 숙녀에게는 아직 시집을 못보낸 딸이 있다. 그러나 사정의 절박함과 관계없이 죽음의 신은 여자를 재촉해 저승으로 데려간다.

L. 'But if, oh! if you could for me obtain 그러나 혹시, 혹시 당신이 나를 위해 얻을 수 있다면.

A freedom, and a longer life to reign, 자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더 긴 생명을.

Fain would I stay, if thou my life wouldst spare. 나는 머무르고 싶어요. 당신이 내 생명을 남겨준다면.

I have a daughter, beautiful and fair, 난 딸이 하나 있어요. 아름답고

21) Death and the Lady, 앞 자료 참조.

멋진.

I wish to see her wed, whom I adore; 난 그애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길 열망해요.

Grant me but this, and I will ask no more?'²²⁾ 내게 이것만은 허용해줘요. 더 이상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을게요.

죽음의 신은 딸이 결혼할 때까지 죽음의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숙녀의 요청에 아주 하찮은 핑계라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은 신의 섭리(Province)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어린 딸조차 이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종교적 엄숙함이 자리 잡고 있다.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에서는 식구들과의 이별 노래가 마지막으로 길게 이어진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떠나는 데에 대한 비장함이 역설적 표현으로 강조된다. 이에 비해 <죽음의 신과 숙녀>에서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보다는 자신이 이승에서 지은 죄에 대한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강조된다.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가 죽음이 이별로 인한 고통을 자아내는 것이어서 두렵다면, <죽음의 신과 숙녀>는 죽음이 이승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다.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에서 죽음의 신(염라대왕을 비롯한 저승 시왕)은 허용애기가 울기만 하는 것을 살피고 그 이유를 물으며, 허용애기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승을 오갈 수 있게 하는 자상함과 관대함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에서 죽음의 신(악마, 사탄)은 농부에게 나타나 농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말하는 데에서부터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편협한 존재로 여겨진다. 악마(사탄)은 만인에게 엄격하고 공평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에게만 호의적인 존재이며, 농부 아내의 일격에 항복을 하고 자식들의 성

22) 위 자료 참조.

화에 죽음의 심판조차 반복하는 졸렬한 존재로 나타난다.

When they got there the gates they were shut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 있었네.

With a blow of her hand she laid open his nut, 그녀는 일격에 그의 머리를 깨버렸네.

Two little devils were playing handball, 작은 악마 둘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네.

Take her back Daddy, she'll be the death of us all!²³⁾ 그녀를 도로 데려다줘요, 아빠, 그녀가 우릴 모두 죽일 거예요.

농부의 아내에게 일격을 맞아 머리가 깨진 악마는 농부에게 다시 아내를 돌려주면서 “왜냐하면 그녀는 내 삶에 고통이고 골칫거리기 때문이라네.(For she's the bane and torment of my life)”라고 말한다. 농부에게 고통이고 골칫거리이던 아내가 이제 악마에게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심지어 다른 각편에서는 “나는 내 평생동안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이였지 / 그러나 네 아내만큼 내게 고통을 주는 이는 없다네.(I have been a tormentor the whole of my life/ But I neer was tormented so as with your wife.)”²⁴⁾와 같이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악마(사탄)은 이승의 여자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절절매는 허약하고 과단성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물론 앞에서 말한 ‘나쁜 여자’의 악함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신에 대한 공정성과 엄격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며, 그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주인공이 저승차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면,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에서의 주인공은 악마를 때리고 차거나 각편에 따라 죽이기까지 한다. <저승차사가 데

23) The Farmer's curst wife, 앞 자료 참조.

24) 위 자료 참조.

리러 온 여자> 노래에서는 주인공이 저승으로 떠나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애운애기> 계열), 주인공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인공을 이승에 돌려보내 준다면(<허웅애기> 계열),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에서는 주인공의 거친 행동을 견디지 못해 주인공을 이승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가 저승차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인간(그것도 여자)이 악마를 이길 수 있다고 여긴다. 성질이 고약한 여자, 잔소리 많은 여자는 악마도 어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 노래에 깔려 있다.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가 이승과 저승이 갈라져 서로 오갈 수 없다는 운명론적 인식을 드러낸다면,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강인함으로 인해 저승의 명령조차 거역할 수 있다는 반운명론적 인식을 보여준다.

심지어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향유층은 허웅애기가 일찍 저승에 불려가게 된 것이 허웅애기가 너무 숨씨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까지 한다. 살림을 지나치게 잘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닌 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 청중이 “그래, 숨씨도 너무 야무면 복이 없다 안카나.”²⁵⁾라고 한 말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지나치게 뛰어난 사람이 이승에서는 오히려 복이 없다는 말에는 평범함 속에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운명론적인 인식과 처세관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와 <죽음의 신과 숙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가 나타내는 죽음에 대한 운명과 반운명적 인식은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말 일이 아니다. 노래의 이면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여자들의 인식이 운명과 반운명 속에서 끊임없이 전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살림 잘하는 허웅애기가 일찍 저승에 가야 하는 것으로 설정한 데에는 저승에 일찍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갑자기 죽고 마는 부당한 운명에 대한 저항의식이 내재돼 있다면, 사치스런 숙녀나 골칫거리

25) [성주군 대가면 설화 22], 구비대계 7-4, 저승에서 잡아간 이운 애기, 이차계(여, 60), 칠봉 2동 사도실, 1979.4.5. 강은해 조사.

아내가 일찍 저승에 가는 것은 주인공이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죽음의 심판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내재돼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웅애기의 운명에 대한 저항이 좌절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운명론적 시각이 드러난다면, 농부 아내의 운명에 대한 저항은 성공함으로써 죽음에 맞서 싸우는 반운명론적 시각이 드러난다. 즉 한국과 영국의 노래 모두 여성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 인식과 반운명론적 인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맺음말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와 영국의 <죽음의 신과 숙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 모두 죽음의 신이 갑자기 여자를 데리러온 공통적인 화소를 지니고 있다.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 중 <애운애기> 계열과 <죽음의 신과 숙녀>는 주인공이 아이를 둔 젊은 여자로서, 여자가 죽음의 신(저승차사, 악마)을 돈이나 재물로 회유하고 돌볼 자식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 중 <허웅애기> 계열과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둘 다 주인공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주인공이 숨쉴 좋고 시집살이를 잘하는 '착한 여자'인 반면, <죽음의 신과 숙녀>,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주인공이 사치스럽거나 성질이 고약한 '나쁜 여자'이다. 하지만 '착한 여자'인 허웅애기는 저승차사와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나쁜 여자'인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악마와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승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된다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와 <죽음의 신과 숙녀>는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론

적 인식 사이에서,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죽음의 심판에 대한 긍정의 식과 이에 대해 맞서 싸우는 반운명론적 인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항하는 향유층의 의식을 드러낸다.

이렇듯 한국과 영국의 발라드는 같은 화소를 공유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유사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는 한국과 영국이라는 민족적,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봉건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와 여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약자였던 여성은 ‘착한 여자’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나쁜 여자’라는 단죄를 받아야했다. 한국의 <저승차사가 데리러온 여자> 노래가 이러한 ‘착한 여자’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된 여자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면, <농부의 저주받은 아내>는 ‘나쁜 여자’ 이데올로기의 허울을 벗겨내고 조롱한다.

이는 한국과 영국의 여성들이 살아온 생활환경과 그 속에서 형성된 여성의식 또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죽음과 같은 고통에 저항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착한 여자’에 머물렀다면, 영국 여성들은 ‘나쁜 여자’라는 단죄 속에서 죽어가거나 이를 과감하게 벗어 던졌다.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착한 여자’이기보다 운명을 거부하는 ‘나쁜 여자’가 오히려 악마를 이기고 오래 살아남는다. 어느 것이 진정 여성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 바른 선택인가? 사회(또는 남자)가 요구하는 ‘착한 여자’로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한국과 영국의 여성들은 이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오랜 세월 동안 발라드를 통해 피워냈다. 발라드는 ‘꽃을 피운 가시(Flowering thorn)’²⁶⁾로 비유된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가해진, 죽음과 같은 가혹한 운명과 억압 속에서 피워낸 ‘꽃’, 그 속엔 ‘가시’가 숨겨져 있다.

26) Thomas A. Mckean, "Introduction", *The Flowering Thorn: International ballad studies*, ed. by Thomas A. McKea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Book 68, 2003, p.1. 참조.

참고문헌

- 『백록어문』1집~19집(학술조사보고), 제주대학교 백록어문학회, 1986~2004.
- 『한국구비문학대계』(총8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 『한국민요대전』(총9권), (주)문화방송, 1993~1996.
-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울산울주지방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0.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임석재 전집 9』 전라남도·제주도 편, 평민사, 1992.
- 진성기 편, 『탐라의 신화』, 민속원, 1980.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영희, 「비극적 구전서사 <애운애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383~431면.
- 서영숙, 『한국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우리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 _____,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애운애기>, <허웅애기> 노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91~120면.
-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증보판.
- 피천득·심명호, 「영미의 Folk Ballad와 한국서사민요의 비교연구」, 『연구논총』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회, 1971, 169~237면.
- 한규만, 「한국의 서사민요와 영미의 포크밸러드에 나타난 주제의 비교 분석」, 『울산대 연구논문집』 19, 울산대학교, 1988, 1~28면.

한규만, 「포크밸러드와 여성」, 『신영어영문학』 12, 신영어영문학회, 1999, 7~31면.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s(Five Volumes), ed. by Francis J. Child,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5 (First published in 1884-1898).

Gilchrist, Anne G. “*Death and the Lady in English Balladry*”, *Journal of the English and Song Society*, Vol. 4, No. 2, Dec. 1941, pp. 37~48.

Leach, MacEdward, “*Ballad*”, *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Vol.1, ed. by Maria Leach, New York: Funk & Wagnalls, 1940.

McKean, Thomas A., “*Introduction*”, *The Flowering Thorn: International ballad studies*, ed. by Thomas A. McKea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Book 68, 2003, pp. 1~16.

<http://www.contemplator.com/england/death.html>

<http://www.contemplator.com/child/curstwif.html>

투고일 : 2013년 1월 14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Comparison of the Recognition of the Death of Women in Korean Ballads and English Ballads : Focused on "A Woman Who the Death Call for"

Suh, Young-sook

This paper compared the recognition of the death of women in Korean folk ballads and English folk ballads : focused on "A woman who the Death call for". I selected "A woman who the messenger from the world of the dead call for" in Korea, "Death and the lady" and "The farmer's curst wife" in England. Three ballads have the common motif "Death call for a woman in a sudden". "Aeunaegi" in Korea and "Death and the lady" in England are common in that a protagonist is a young woman who has young kids and that she conciliates the Death with bribe to extend her life. "Heungaegi" in Korea and "The farmer's curst wife" in England are common in that a protagonist returns from the world of the dead.

However, the protagonist in "A woman who the messenger from the world of the dead call for" is a good woman. In the contrast with that, the protagonists in "Death and the lady" and "The farmer's curst wife" in England are bad women. These ballads show the paradox that a good woman Heungaegi fails to return from the world of the dead to this world, though a bad woman the farmer's curst wife successes to return from the world of the dead to this world through the struggle with the Devil. Moreover, "A woman who the messenger from the world of the

dead call for" and "The farmer's curst wife" express the recognition between the resistance about the death and the acceptance of the destiny. These show that women have competed with their reality and destiny consistently.

Key words : narrative song, folk ballad, Aeunaegi, Heungaegi, Death and the lady, The farmer's curst wife, this world, the world of the dead, death, women, destiny